

새만금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수질개선 방안

- 주최_ 새만금개발연구원
- 후원_ 한나라당,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무조정실,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은행, 한국농촌공사

새만금개발연구원

- 진 행 순 서 -

■ 개 회 식 15:00

- 개 회 사 _ 고 상 순(새만금개발연구원장)
- 내빈소개
- 축사 및 격려사
  - 박 희 태(한나라당 대표최고의원)
  - 홍 준 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임 태 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한나라당,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무조정실,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은행, 한국농촌공사

■ 주 제 발 표 15:30 ~ 16:00

- 주제발표 1 _ 새만금 환경 대책 및 토지이용 구상과 관광발전 방향
  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_ 장 병 권
- 주제발표 2 _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방안
  전북발전연구원 부원장_ 원 도 연

■ 종 합 토 론 16:00 ~ 17:00

- 사 회 _ 이 정 재(서울대학교 입학관리처장)
- 토론자
- 축사 및 격려사
  - 농 업 : 손 재 권(전북대학교 교수)
  - 문 화 : 나 종 우(원광대학교 교수)
  - 환 경 : 김 성 준(건국대학교 교수)
  - 통상무역 : 김 호 성(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 폐 회 사 17:00

■ 만 찬 17:00 ~ 19:00

개 회 사

오늘 여러 전문가 및 각계 대표를 모시고 '새만금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수질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제2회 새만금개발연구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새만금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을 토론하고 새만금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진해 주신 고견은 새만금사업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새만금지역은 갈등과 반목이 아닌 국민적 관심과 에너지를 총집결하여 지역혁신의 촉매제 역할과 관광, 물류, 유통, 산업 등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희망가를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현재 하얀 백지상태의 도화지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어떠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명화가 될 수도 있고, 낙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의지와 현 정부의 의지를 모아 새만금지역을 국가전략산업 및 물류, 관광산업의 핵심지역으로 개발되어, 새만금이 국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세미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토론의 장으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집중하여 새만금 지역을 'Cash-Cow' ,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육성하기 위한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들을 포함한 내빈들의 고견은 새만금 미래를 설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나게 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들과 귀빈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개발연구원장 **고 상 순**

축 사

각계 대표 및 전문가들을 모시고 '새만금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수질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매우 바람직하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시간동안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새만금지역이 환황해권 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한 물류, 유통,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신천지로 태어나기 위해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토론의 장으로 어떻게 하면 전국민이 원하는 성공적인 방향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고 지역과 국가가 동시에 윈-윈(win-win)하는 상생의 해법을 찾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들께서 제시하고 논의된 의견들은 새만금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 국민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새만금 지역이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할 '약속의 땅', '희망의 땅'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분열된 의견을 통합하여 새만금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수질개선 및 친환경개발에 관한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과 내외 귀빈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박 희 태**

축 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새만금개발연구원의 새만금사업 포럼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경제분과 위원회 부위원장 이신 새만금개발연구원 고상순 원장님을 비롯해 한나라당 관계자 여러분과, 포럼에 참석해주신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상순 원장님께서는 새만금사업이 시작한 1991년부터 현재까지 깊이 관여해 자타가 공인하는 새만금 전문가로서 새만금의 발전방안을 학계와 정치권에 피력해, 현재의 새만금사업의 밑그림을 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방향을 위한 포럼의 결과에 우리 한나라당은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계획수립은 물론 사업예산 확보를 통해 1991년 새만금사업의 탄생과 시작의 물꼬를 튼 산파 역할로 귀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의 첫 삽을 뜬 기공식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이 완공되면 한국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을 시작한 정당으로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 새만금 군산 ·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선 이전부터 새만금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출범 초기 새만금사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함은 물론 [규제 없는(Free Regulation)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이끌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08. 7. 21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 기본방향 제시 및 본격적인 지역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을 위해 개최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새만금사업을 당초 2030년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단축하고, 군산측 산업용지와 부안측 관광용지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기에 개발함은 물론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신항만과 기존 군산공항 확장 등 국제공항 건설방안을 검토하며, 새만금 토지의 조성원가를 절감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이 끝가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기대 해주십시요!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새만금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이면 새만금은 물류, 산업, 관광, 첨단농업, 환경이 어우러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규제 없는(Free Regulation)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성, 발전되어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8. 7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 준 표**

축 사

새만금의 21세기적 의미와 발전방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더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7년 봄,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한창 뜨거운 이슈였을 당시, 전북도청에서 한나라당과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때 제가 한나라당 의원이자 여의도연구소장 자격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고, 많은 분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새만금 현지를 찾아 새만금사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눈 기억도 있습니다. 새만금 한 가운데 있는 신시도 전망대에 올라보면 새만금 안쪽과 바깥쪽 바다가 널리 보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지금 이 거대한 사업이 우리들과 21세기의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새만금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바다의 역사입니다. 간척하고 그 땅위에 민족과 국가를 위해 웅대한 꿈을 펼치는 백년대계의 대역사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소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땅이 바로 새만금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세계는 지금 무한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환황해 경제권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경제의 변방에서 벗어나 중심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한국경제도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에는 중국 동해안의 경제특구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세계적인 대기업의 투자, 발전을 이루겠다는 중국 국민들의 열망이 합쳐져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경제의 미래는 이러한 중국의 발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면서 한국만의 특화발전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새만금의 넓은 땅이 그런 국제적인 전략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한나라당은 이 지역을 '세계경제자유기지'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경제자유기지'는 어떤 규제도 없고 세금도 없고 분규도 없는 오로지 경제적 발전만을 위한 특별한 경제공간을 말합니다. 새만금에 두바이의 자벨알리 자유무역지역에 버금가는 경제특구를 건설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기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새만금은 국가사업입니다. 이제 새만금 사업을 더 이상 미루고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새만금은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둘러서 토지를 만들고 그 위에 가장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새만금의 조기완공과 앞으로의 개발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연구원에서 제출할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수정연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새만금 사업의 로드맵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한나라당은 새만금에 대한 특별한 전략과 내용을 만들어나가고 필요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바로 한나라당의 새만금 전략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계에서 찾아주신 좋은 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들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 태 희**

주제발표 1

새만금 환경대책 및 토지이용구상과 관광발전 방향

장병권(호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교수)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농지중심의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야할 것 없이 모두 기존의 국내용 농업생산 거점에서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 재조명되었고, 급기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존 정부구상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세계경제자유도시'(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국가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 2008).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구상이 정부의 기존 구상을 뒤집어 놓은 구상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경제분업 체계화 및 국내경제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는 이미 10년 전에 국책연구원에 의해 수립된 '새만금 내부종합개발계획 실행연구'(산업연구원, 1997)와 매우 흡사한 구상이기 때문이다.

금년내에 정부계획이 확정되겠지만 정부가 2008년 7월 21일 발표한 「지역 성장 거점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 방안」에 따르면(국토해양부, 2008), 새만금을 '동북아 두바이',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로 하고, 사업기간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까지로 10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새만금을 '내수용'이 아닌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의 구상은 새만금의 '가치와 역할'에 대하여 적절하게 인식하고 지역차원보다는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자세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새만금에만 국한된 구상에 머물지 않고 주변 지역까지 연계해 국제생산·교역, 해양관광, 식품산업 중심인 성장벨트로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기존의 어떤 구상보다도 진일보한 구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新구상이 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적지 않다. 환경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내부개발의 문제도 지역간·이해집단간 미묘한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그동안 시민사회의 주장은 물론 정부 스스로 새만금개발사업의 말목을 잡아왔던 환경문제를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메가 플랜(Mega Plan)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수질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구상은 또다시 '구두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발표(1)에서 새만금의 수질문제에 대한 기존의 쟁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목표수질과 관련하여 정부 스스로도 준수하기 곤란한 기준을 견지한다면 새만금 사업은 물론 차후 유사한 국책사업의 추진도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목표수질

기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상류지역-담수호-바다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 각 부처 및 전북도간 철저한 역할분담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새만금 개발에 그 입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 타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개발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동북아 두바이' 구상만 보더라도 항만, 공항, 도로망 등 인프라 확충에 따라 기존 지역발전 경쟁에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타 지역과 미묘한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타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계속되어야 한다.

다행스런 점은 주제발표(2)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새만금 개발사업의 내용도 주변 지역까지 연계해 국제생산・교역, 해양관광, 식품산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개발방향과는 '차별화'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의 역할을 동북아의 장기적인 경제전망에 기초하여 한국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만금의 세계경제도시화 구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적극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장병권, 2008a).

정부는 새만금의 개발방향을 '동북아의 두바이'라며, 두바이식 개발모델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새만금'의 역할이 막중한 것은 지역차원보다도 국가차원에서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만금이 '제2의 두바이'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다. 두바이의 경험과 개발모델로서의 장·단점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느려터진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의 개발사례도 감안하여야 한다. 그 주요 쟁점은 정부의 리더십과 추진장치의 확보여부, 관광드라이브형 정책에 대한 인식, 두바이식 경제개발모델의 선진성 여부, 환경과 문화의 가치확보 여부, 정부차원의 개발참여 여부 등이다.

첫 번째로 새만금 지역을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할 강력한 리더십(leadership)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다.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하였지만 현행법 자체만으로는 세계경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을 '전북의 관심사'로 취급한다든가 또는 선거용으로 활용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래의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얽매이는 한 새만금의 세계경제자유도시화는 요원하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챙기고 관장하여 성과를 내고 나아가 국민적 평가를 받으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실천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두바이처럼 새만금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추진장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두바이의 성공은 1990년대 중동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통찰한 두바이의 통치자 세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절대적인 지

원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두바이와 한국의 정치경제질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에 두바이와 같은 특단의 지원책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종전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의 추진시 정부가 과거보다 더 많은 자율과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듯이, 세계경제자유도시를 선언한 새만금에는 그 이상의 특별대책이 제공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세 번째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관광드라이브 시책'(tourism-drive policy)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땅나눠먹기식 용도설정과 배타적 개발권한 부여는 새만금의 통합적 개발과 세계경제자유도시로서의 브랜드화를 모색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굳이 용도별로 부처별 개발권을 부여하거나 중앙과 지방간 개발사업을 양분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위조직이 필요하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바이는 많은 미니시티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전북도가 새만금에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 도입시설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과연 '두바이식 경제개발모델'이 새만금 사업의 최상의 모델인가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바이의 개발모델과 '4無정책'(無세금, 無제한 외환거래, 無스폰서, 無노동쟁의)은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되 이를 통해 건설된 산업시설을 영위할 인력을 제3세계의 저임금 노동자로 채우고 있는 전형적인 '착취형 개발모델'이다. 두바이가 존속할 수 있는 이유도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이 세계경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동인력의 이동을 보장해야 되겠지만 1970년대 한국경제모델인 두바이식 개발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적어도 '세계적 질서에 부합하는 한국형 신 발전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세계 최고·최대'의 아집에 물든 두바이적 사고가 새만금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이다. 두바이는 '7성급 호텔'(버즈알 아랍), '세계 최고의 건축물'(버즈두바이),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두바이랜드, 4,350만평), '세계최대 호텔'(아시아-아시아 호텔, 6,500객실), '세계 최대의 쇼핑몰' 등 세계 최고·최대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오만한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이상한 도시'이다. 새만금 사업의 면적은 두바이에 비하면 현저한 차이가 날 정도로 적은 면적이다. 오히려 새만금의 개발은 한국의 높은 IT능력과 한국적 정서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하이테크·하이터치 도시'(hightech-hightouch city)로 조성하는 것이 두바이보다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철저한 '성장드라이브형 정책'으로 인하여 문화와 환경, 그리고 개인생활의 삶의 질을 경시하는 두바이적 개발모델이 새만금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두바이적 사고는 왕정 국가들이 대다수인 중동의 시각에서는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으나 이미 민주적인 사회로 변모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니다. 특히 같은 연합국가이면서도 후발주자인 '아부다비식 개발

모델'(Abu Dhabi model)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부다비는 두바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즉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엔터테인먼트 위주보다는 문화산업에 초점을 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사업도 두바이식 개발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이를 보완한 '아부다비식 개발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로 새만금이 세계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장·단기적 지원책을 여하히 추진할 능력이 있는가이다. 가장 단기간에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한 두바이나 마카오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만금 지역에 외래관광객의 유치역할을 얼마나 부여하고, 또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인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장병권, 2008b). 정부는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도시'로 비전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외 민자유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홍콩이나 마카오, 두바이에서 보듯이 공공부문(토지공사, 주택공사, 농촌공사, 관광공사, 전북도 등)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상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방침(동북아 두바이)과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당면문제인 수질개선과 국민적 지지확보, 그리고 세계경제자유도시로서의 새만금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새만금의 세계경제자유도시화 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수질대책이 요구되며, 환경용지를 늘리고 이를 생태관광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의 구사가 요청된다. 그리고 새만금의 세계경제도시화에 대한 우려와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새만금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사업내용의 차별화·세계화를 통하여 타 지역에도 '得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나아가 두바이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 중동의 금융·관광·비즈니스허브로 둔갑하게 된 계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만, 두바이만을 벤치마킹할 최상의 모델로 삼을 수 없다. 두바이를 벤치마킹하되 겸손하고 품위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새만금과 비슷한 면적을 갖고 '세계도시'(world city)로 부상하고 있는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아부다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한국형 세계도시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새만금의 개발방향과 비전을 정부가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듯이, 세계적인 석학들의 의견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콘셉트가 있고 디자인과 브랜드가 돋보이며 생명력이 있는 소프트적 도시로 창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대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지원책을 갖고 추진하되 관광·문화 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하이테크·하이터치 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관광부문의 경우 새만금은 한국의 차세대 관광수익원(cash cow)이자 관광발전소(tourism powerhouse), 나아가 뉴 프런티어(new frontier)로서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중동의 두바이와 아부다비, 프랑스의 랑독-루시롱, 미국의 올란도, 멕시코의 칸쿤 등의 도시들과 견줄 수 있는 '세계관광도시'로 육성하여야 한다. 새만금 자체가 '하나의 관광지'라는 콘셉트를 설정하고, 도입될 공간과 많은 시설들이 관광자원으로 한 번 더 활용될 수 있는 관광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발표 2

2007-2020
새만금, 어디로 가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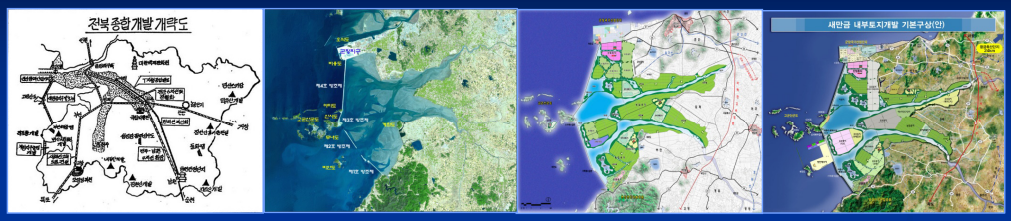
Presented by 원도연/Won Do-Yeon
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발표 순서

1. 새만금사업의 개요와 현황
   - -새만금사업의 개요
   - -새만금사업의 주요쟁점과 변화
2. 새만금의 의미와 기본방향
   - -대중국시대란 무엇인가
   - -제2의 장보고플랜
   - -새만금사업의 5대 기본방향
3. <4.3 기본구상>의 내용과 방향
4. 새만금특별법의 내용과 방향
5. 경제자유구역 개요와 내부이용계획
6. 새만금 환경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료는 개인적인 연구결과로 전북도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1. 새만금사업의 개요와 현황 : 사업개요



▪새만금사업의 개요

- ❑ 규모 : 40,100ha(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 ❑ 위치 : 2시 1군 18읍 면 동(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 ❑ 총사업비 : 3조 7,551억 원(06년까지 : 2조 1,387억원)
  - ♦ 외곽방조제 : 24,399억원, ♦ 내부개발비 : 13,152억원
- ❑ 주요시설 : ♦방조제 33km, ♦ 배수갑문2개소
- ❑ 사업기간 : 1991 ~ 2011
- ❑ 시행기관 : 농림부(총괄), 전라북도(보상), 한국농촌공사(설계시공)

1-2. 새만금사업의 개요와 현황 : 쟁점과 변화



▪새만금사업 주요 일지

- ❑ 1987.12.11 : 1989년~1996년까지 <새만금지구간척사업> 실시 발표
- ❑ 1989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그로부터 3년 후인 1991년 11월 착공
- ❑ 1994년 7월 제3호 방조제 물막이 완료
- ❑ 1998년 12월 제1호 방조제 준공
  - -1999년 5월 시화호 오염사건의 여파로 공사중단. 민관공동조사
  - -2001년 5월 25일 정부 새만금사업 계속 추진 결정
  - -2003년 7월 15일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소송 수용되면서 공사중지
- ❑ 2006년 4월 21일 제2호 방조제 물막이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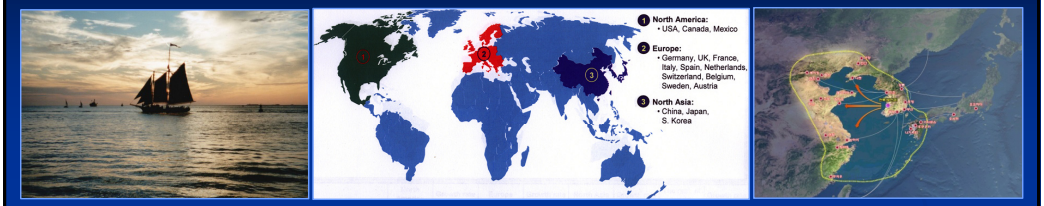
1-3. 2006.4.21 새만금방조제 완공



▪ 새만금방조제 완공의 의미와 과제

❑ 1991년 이후 수질오염, 갯벌논쟁, 용도논쟁 등 국민적 관심사 부상
❑ 환경문제에서 새만금 활용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 이동
  -새만금에 대해 국가전략적 의미와 위상 부여
  -새만금특별법,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신항 및 국제공항 등 새로운 이슈
❑ 전북발전의 획기적 계기로 인식. 전북의 새로운 에너지로 발전
❑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가 '농지조성'에서 용도가 '복합용도'로 전환

2-1. 새만금의 의미 : 환황해시대의 도래가 의미하는 것



❑ 강(江)의 시대에서 해(海)의 시대로, 내륙지향에서 해양지향으로
  -한강, 낙동강의 시대에서 경기만, 부산만, 광양만, 새만금의 서해시대로
  -대도시권의 공간구조가 임해지향적으로 급속히 전환
  -수도권(경인→임해도시), 동경권(내륙→동경만 중심), 런던권(내륙→해양지향)
❑ 황해경제권에는 인구 백만 이상 도시가 60개, 전체 거주인구 3억
  -<한국의 서해안+일본의 서남부(큐슈)+중국의 환발해만지역>
  -월경적 초거대 경제권 형성. 3억의 인구, 세계적인 산업의 집적지로 동북아 경제의 중심 형성
❑ 대국경제 중국의 재부상
  -1세기 한나라(전세계 GDP 26%, 세계2위)→11세기 송나라(23% 세계 2위)→16~17세기 명나라(25%, 세계 1위)→19세기(32% 세계 1위)→이후 산업혁명 실패로 침체→재부상(1978년 개방 이후 30년간 연평균 10% 성장)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사태 : 중국경제의 힘과 폭발력 실증

*허재완(2008, 새만금개발방향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 참고

2-2. 새만금의 의미 : 대중국시대의 진정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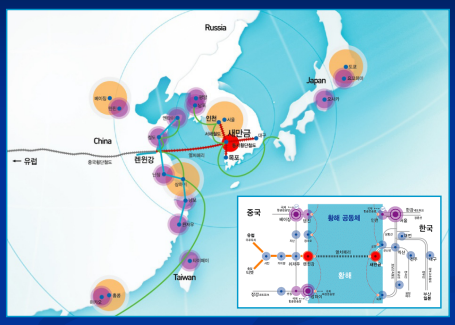
❑ 중국의 3대 핵심경제지역
- -주강(광쩌우 중심 광동성 일대)는 홍콩과 생산네트워크 형성
- -장강(상해, 소주 등)은 대만과 생산네트워크 형성
- -발해만(북경, 천진, 산동성 등)은 한국과 생산네트워크 형성

❑ 환황해권의 분업구조
- -산업의 수평적 구조(국경을 초월하여 최적의 생산체계를 갖춤, 권역내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생산)
  예) LG전자: 수도권 부품생산→산동성 조립→영종공항 통해 수출
- -중국의 성장과 더불어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중국 발해만과 한국 서해안 중복)
- -중국정부는 천진 빈하이 신구 육성에 집중(새만금의 4배 면적)
- -환발해만과 차별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로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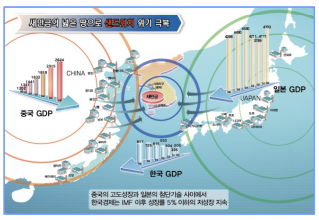
환황해권을 선도하는 초국경 · 초영토의 개방거점 ⇨ 현대판 청해진
-국내 법, 제도, 관행이 아닌 국제기준의 완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2-3. 새만금의 의미 : 제2의 장보고 플랜

▪제2의 장보고 플랜
- -황해경제권에는 인구 백만 이상 도시가 60개, 전체 거주인구 2억
- -황해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조망하는 관점 필요
- -황해경제권의 핵심축은 중국의 동부공업지역과 한국의 서해안 도시임.
- -양 핵심축이 각각 도시연합(Urban Link)를 형성하고 도시연합끼리의 연계 강화 필요
- -새만금의 황해경제권의 핵심지역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위기상황과 새만금
- -저성장 및 제조업 설비투자 저조상황 타개할 전략 필요
- -관광부문의 국제수지 적자 확대
- -수도권 과밀, 과집적에 따른 총체적 생산성 저하 상황
- - '동북아의 두바이' 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21세기 서비스산업으로 한국의 위기 극복
- -새만금은 21세기 한국발전의 마지막 조건



2-4. 새만금의 5대 강점과 5대 발전방향

▪새만금의 5대 강점

1)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활한 토지(여의도 130배)
2) 국유지로 민원과 규제가 없는 드림랜드 (새만금특별법)
3) 저렴한 토지 (최장 100년까지 저가임대가 가능)
4) 국가가 지원하는 광역인프라로 최상의 접근성 보장
5) 관광산업 적자를 일거에 해소할 신개념 관광산업 가능



▪새만금사업의 5대 기본방향

1)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관점에서 개발
   -새만금은 국가가 시작하고 국가가 마무리해야 하는 국책사업
2) 국가 산업발전의 요충지로서 의미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의 적지(항공우주, 신재생 등)
3) 동북아의 두바이를 실현하는 핵심거점
   -국제비즈니스도시, 세계경제자유도시, 현대판 청해진
4) 고부가가치형 첨단산업의 산업거점
   -첨단제조업과 관광산업
5) 전북의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야 한다

3-1. 4.3 기본구상의 내용과 의미



▪4.3 기본구상이란?

-2001. 친환경순차개발, <先동진강, 後만경강>개발방식 확정 (만경강의 수질관리 목표달성 후 개발)
-2002. 정부가 국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내부개발구상을 의뢰
-2007. 4.3 농업용지 71.6%(유보지 14.7% 포함한 면적), 산업용지 6.6%, 관광용지 3.5%로 발표
-2010년 동진강유역 완공, 2030년 만경강 유역 완공 ·위 그림 좌에서 우로 각각 2010, 2020, 2030
-방조제 완공 후 동진-만경 방수제 공사 순서

▪4.3 기본구상의 의미와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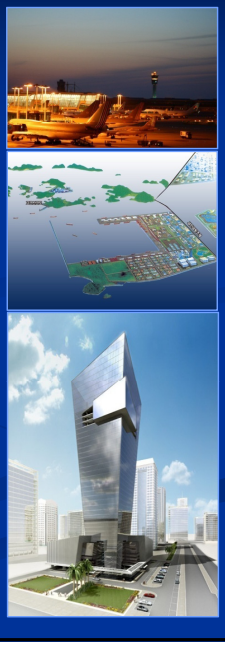
-새만금개발추진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
-12개 부처의 업무담당자로 실무작업반 운영 : 농림부 사업에서 정부 각 부처간 연합사업으로 격상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실천계획 수립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 사업 추진

3-2. 새만금특별법 : 왜 특별법인가(1)

▪왜 새만금 특별법인가?

-환황해는 치열한 경쟁에 돌입 : 경쟁에 이기기 위한 시간싸움
  *중국경제특구들의 개발, 한국 서해안의 급속한 발전
-1991년 새만금 사업의 최대목적은 '안정적인 농지확보'
  *한국농업에 대한 산업적 인식이 변화
  *간척으로 조성된 1억2천만평의 땅은 복합용지로 사용되어야 한다.
-새만금지역의 용도에 대한 국가적 입장 변화
  *정부차원의 내부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와 연구용역 실시
  *대중국(환황해 경제권)에 대비한 전략거점으로서의 의미
  *전북의 산업적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지로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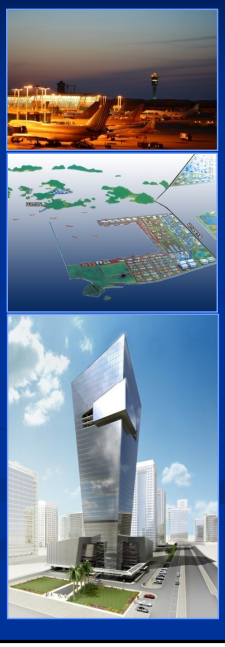
-4.3 새만금내부개발계획에 조응
  *복합산업용지로 전환될 새만금 내부개발에 중장기적 대응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국내외 민간자본의 참여유도
  *가장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개발 프로그램 마련
-공유수면매립법상의 특례를 통해 조기개발 가능성



3-2. 새만금특별법 : 왜 특별법인가(2)

-새만금은 '바다를 매립' 하는 단계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새만금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 위 법률에 수반된 시행령, 규칙
-1987년 사업발표 이후 중단과 공사재개의 끝없는 반복
  *타의에 의한 반복되는 사업중단과 재개는 전북의 불안야기
  *정부부처간의 의견대립, 부처별 계획수립에 따른 행정력낭비
  *재원조달의 불투명, 향후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불투명
-새만금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계획의 법적 보장

-수많은 법령과 개발주체 및 개발절차를 단순화시킬 필요
  *신속하고 일관된 개발을 통해 새만금사업의 효용성 극대화
-새만금특별법으로 새만금사업을 예측 가능한 상수로
  *새만금사업이 전북발전전략의 상수(Default)가 되게함
  *새만금의 비전이 확정되어야 전북의 진전된 발전전략이 가능
-새만금사업을 감성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3-3. 새만금특별법 : 주요 내용과 효과

▪새만금사업의 핵심내용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종합개발계획 입안권은 농림부장관, 전북도지사는 협의권
*사업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 투자자로 함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40개 인.허가 의제처리로 개발절차 간소화
*기반시설을 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하여 설치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및 외자 도입
*토지조성 및 분양에 특별조항 두어 개발 가속화

-안정적 사업추진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새만금종합개발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농림부 주관하에 농지 포함, 전체적인 사업계획, 예산 확보, 부처 협의 .조정 등 사업 추진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로 개발절차 대폭 간소화로 개발 가속화
-개발에 필요한 채권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 마련
-새만금개발위원회 설치 및 전담추진기구 구성.운영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박차






4-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 개요





▪명칭 :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SG FEZ)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
▪면적 : 4개 지구 96,380천㎡
-(군장국가산단지구 , 새만금지구, 고군산군도지구, 군산시 배후지구)
▪기간 : 기준년도 : 2008년, 목표년도 : 2030년
-1단계 : 2008~2020년
-2단계 : 2021~2030년



4-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 발전비전

발전비전 : 동아시아의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

기존산업기반	중점산업기반	
▶자동차, 기계, 부품 (현대, GM대우, LS 등) ▶조선산업, 첨단소재 (현대중, 복합소재기술원)	▶신재생에너지 ▶탄소소재산업 ▶바이오(식품가공) (MFT 미생물융합산업)	지식창조형 환경친화형 산업
▶전통문화중심도시 (풍부한 문화산업자원) ▶무주태권도공원(예정) (우수한 환경자원)	▶고군산군도 관광지 (마리너, 헬스케어, 고급휴양) ▶새만금레저파라다이스 (골프클러스터, 카지노 등)	국제적인 위락 · 휴양 거점

4-2. 성장동력산업 : 첨단부품소재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분야의 현황

-미래형자동차, 기계, 탄소밸리, 융합기술부품소재 분야로 특화

-탄소밸리는 고기능성 탄소복합소재 부품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탄소소재 국내수급량의 50%(2000톤), 50개 핵심기업 육성

-기계자동차 부품클러스터에서 핵심부품 수출전략화

-융합부품소재클러스터로 유망선도기업 50개 유치

▪<탄소밸리>의 의미와 전략

-2003년 이후 산업자원부 기술공모사업으로 시작.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소섬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5년간 연구개발

-탄소섬유의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민군겸용기술지원사업으로 선정하고 효성그룹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생산과정에 참여

-R&D가 얼마나 효과적인 산업전략이며 기업유치전략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 탄소섬유는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비행기 부품, 미래형자동차 고급부품, 스포츠 용품 등으로 무한사용되는 차세대 소재로 부품산업의 파급력이 크고 기업유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임

-R&D를 통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기업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용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지역산업전략의 기초



4-3.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유치계획

- 미래형 신산업이자 환경친화형 산업인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구비

-신재생에너지 제조, 발전, 관광을 결합한 120만㎡ 규모의 클러스터를 새만금 산업단지에 조성

태양광
Power 부문
Industry 부문

▶ 최대규모의 S.P.P. 실현
(Solar Power Plant)
-고창, 부안계획과 연계
-한전(3MW) 계획과 연계
-외국인 투자 포함

▶ Solar Industry의 대표적 집산지
-동양제철화학의 소재(폴리실리콘) 중심으로 모듈시스템 관련기업집적
-Cell 관련 R&D기반

국내 신재생 에너지의 상징

4-3.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

-2003년 전북의 지역혁신전략산업으로 선정되고 정부차원 지원약속

-2007년 군산 동양제철화학에서 태양광분야 1조5천억원 투자 발표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지역특구 지정, 테마파크 건설,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시범단지 등 추진중

-정읍 방사선연구소 등 RFT 산업의 기반과 R&D 분야 발전 가능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 NURI 사업으로 지정

▪전북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육성

-3대 성장동력산업에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전주, 군산, 정읍, 부안 등에 산재된 관련기업과 연구소의 네트워크 전략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 있음

-핵심 R&D 기관을 유치하여 향후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전략 필요







4-4. 성장동력산업 : 식품산업(1)

▪식품산업의 의미

-FTA 이후 농업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식품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전북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이자 <맛의 고장>으로 인식되고 있음

-혁신도시의 이전기관이 농업관련기관으로 상대적 우위 확보

-각 시군의 전략산업이 대부분 식품관련산업으로 균형발전의 의미

▪식품산업의 현재 현황

-2007년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국가사업으로 확정. 2008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식품산업의 위상과 의미가 높아짐

-식품산업의 세계적인 모델로 네델란드 식품산업 제시. 네델란드는 자국 농민들의 주력인 화훼와 축산을 지원하는 고급 R&D와 농민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동시에 노테르담 항구를 통해 유럽 전역의 식품물류를 지배함으로서 식품산업의 강자로 성장

▪식품산업의 발전방향

-한국형 UR 조성이 1차 목표. 식품산업과 일반제조업은 발전경로와 결과가 달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어떤 위상을 확보할 것인지 중요









4-4. 성장동력산업 : 식품산업(2)

식품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식품가공산업의 의미

-원료수입 후 가공을 통해 재수출하는 산업전략. 전북의 경우 넓은 농업생산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품목선택에 성공하고 중국시장과의 관계만 확보하면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 가능

-가공식품산업은 지역농업에 기반한 식품산업 성장전략과 별개로 별도의 시장조사를 통해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익산의 식품산업 전략

-현재 전북의 식품산업은 R&D 기반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 검토단계. 중요한 것은 UR로부터 파생되는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을 어떻게 생산 및 기업유치로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

4-4. 성장동력산업 : 식품산업(3)







▪식품인증산업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은 국가적 차원의 공익임. 특히 농산물 수입과 학교급식 등이 일반화되면서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인증사업은 부처별, 품목별, 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분야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식품인증은 위생관리와 식품제조,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인증사업의 기준은 HACCP임. 그러나 장기적으로 농식품 및 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적 인증기구 필요 (식품안전처의 유치 혹은 정부공인 식품안전센터 설립 제안)

▪저장산업과 패키징산업

-인증을 위해 생산품을 저온보관하여 기능을 향상시키는 첨단저장산업(창고산업) 파생. 특히 식품의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해 첨단 저장기술 반드시 필요

-인증을 거친 최종 생산품의 자동포장산업. 전북의 문화예술적 감각과 한지산업의 전통에 적합한 사업아이템. 포장산업의 첨단화, 고급화, 집적화로 아시아 시장에서 이미지 선점 필요

4-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 식품산업(4)





▪경매산업

-아시아 식품산업의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카고 곡물거래소나 네델란드 알스미어 화훼경매장과 같은 첨단 경매산업단지 필요

-중국시장을 겨냥한 식품 아이템을 제대로 선정한다면 황해경제권내에서 경매산업의 성공 가능성 있음. 특히 경매산업의 이미지를 선점한다면 뜻밖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음

➢사례) 네델란드 알스미어 화훼경매장

-화훼산업은 네델란드 수출의 30% 담당, 연간 2조원 수입 산업

-알스미어 경매장의 규모는 60만평, 네델란드와 남아공, 케냐산 꽃들이 이곳에서 판매. 이곳에서 거래된 꽃의 85%가 다시 외국으로 수출

-알스미어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꽃은 2,200만송이, 하루 거래액 58억원

-알스미어 화훼시장의 성공은 경매장 산하 연구소 박사급 연구원 1천명이 R&D에 종사



4-5. 성장동력산업 : 관광산업

▪2006년 한국의 관광수지적자 84억 8천만$

-2006년 외국인 입국 관광객 615만, 출국 관광객 1,160만명
*관광객 수 : -545만명, 관광수지 : 8조 4천억원 적자
*2006년 입국 중국관광객은 89만7천명, 중국 전체 관광객의 2.0%
-중국관광객 유인실패와 국내골프인구의 해외 골프여행
*2006년 해외 골프여행 출국객수 63만명, 1조 1천억원으로 추산
-새만금은 한국 관광산업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지
*중국인 해외여행객은 2010년 6천만명, 2020년 1억명으로 추산
*조례개정으로 관광산업에도 기업보조금 지원 가능
*새만금 관광레저산업과 전북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벨트로 조성







-고군산군도를 동아시아 최고의 고급휴양관광단지로 조성
*빼어난 자연조건, 신비로운 분위기, 맑은바다 등 천혜의 자연조건 구비
*해안선 중심으로 요양과 휴식을 위한 마리너, 고급호텔, 카지노, 콘도 등을 결합한 고급휴양지로 개발
*선유도 지역은 경관 감상, 가용지가 많은 지역은 위락 · 체험형으로



새만금 환경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5-1. 새만금 환경문제의 현황과 쟁점 : 쟁점

▪쟁점 1 : 담수호 조성 Vs 해수유통

-새만금 지역 농지조성, 주변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상류 상습침수 농지의 홍수피해방지 등을 위해서 담수호 조성이 필요

-만경강 유역의 지속적인 수질개선 대책에 힘입어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하므로 담수호로 조성이 바람직

-수질 개선, 갯벌 보전 등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바람직

-수질예측모형 및 자료의 불완전성, 수질개선 대책의 실현가능성 불투명 등으로 담수호의 목표수질 달성이 불확실하므로 해수유통 또는 사업유보가 바람직

▪쟁점 2 : 수질기준 (농업용수 T-P 기준 0.100mg/L 이하

-T-P[인]은 호소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주요물질로 담수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T-P[인]는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비료성분으로, 외국에서는 기준이 낮거나 수질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음

·네덜란드 : 0.150 mg/L (우리나라 5급수 해당), 일본 : 기준 없음

-따라서 농업용수 수질기준으로 T-P[인]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







5-2. 새만금 환경문제의 현황과 쟁점 : 쟁점

▪쟁점 3 : 갯벌 및 농지가치

-(갯벌우위) 갯벌의 생태적 · 심미적 · 경제적 가치는 농지 보다 높음

-갯벌은 대체 · 복원이 어려운 국토의 일부분이므로 보전이 바람직

-(농지우위)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농지조성이 경제성이 높음

-농지를 조성할 경우 갯벌이라는 연안습지가 농지라는 내륙습지로 생태환경이 전환되는 것으로 그 생태적 가치 또한 높음

▪쟁점 4 : 해양 생태계 변화

-방조제 건설은 해류흐름 변화, 해저지형 변화, 퇴적물 이동 등을 야기시켜 해양의 자정능력을 감소시키는 등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침

-방조제 내부 토지이용에 따라 방류되는 오염물질과 담수호의 영향으로 해역의 오염이 심화되고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

-방조제 공사 중 나타난 해양수질 악화 및 일부 생태계 변화는 방조제 공사에 의한 일시적 현상

-장기적으로는 방조제 완공 후 안정된 생태계가 형성될 것임







5-2. 새만금 환경문제의 현황과 쟁점 : 쟁점

▪쟁점 5 : 사업의 경제성

-갯벌의 공익적 가치 등을 감안하면 비용이 편익을 초과

*수산자원, 수산생물 서식지, 오염물질 정화능력, 심미적 가치 감소

-농지 및 담수호의 생산성과 공익성을 감안하면 경제성 충분

*식량생산, 국토확장 효과, 기존 육지 및 농지에 대한 용수 공급, 해일 등 재해 방지

***새만금 수심분포 및 예상수위**

- 새만금지구내 수심분포는 2005년 6월 실측자료에 의하면 EL.(-)40m~ EL.(+)3m까지로 나타났음
- 담수호가 조성되었을 때 일정수위를 유지하는 관리수위는 평상시 EL.(-)1.5m, 홍수시 EL.(-)1.5m~EL.(-)2.0m까지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이 경우 드러나는 육지부 면적은 약 159㎢로 전체 면적의 약 40% 정도임





5-3. 새만금 수질보전대책 : 쟁점



5-3. 새만금 상류 수질현황 : 만경강과 동진강

▪만경강(김제) 년도별 수질변화

-BOD의 경우 1998년 6.84, 99년 7.09를 기록했으나, 2001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3년 3.71, 05년 4.11, 2007년 4.96을 기록

-TN(질소)의 경우 98년 11.091, 99년 13.153으로 최고치 기록했으나 2003년 크게 낮아져 6.516을 기록, 2007년은 4.677 기록

-TP(인)의 경우, 1998년 0.60에서 2003년 0.36을 기록했고, 2007년 0.352로 낮아짐

▪동진강(부안) 년도별 수질변화

-BOD는 1999년 3.7을 시작으로 2002년 4.5까지 상승, 2006년 3.0, 2007년 3.5를 기록함

-TN(질소)은 1999년 5.150, 2000년 3.435에서 2004년 4.777을 최고로 2006년 3.162, 07년 2.782 기록

-TP(인)는 1999년 0.193, 2000년 0.263에서 2005년 0.174, 2007년 0.165까지 기록

▪상류지역의 수질보전대책 : 환경부,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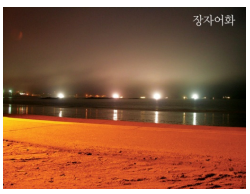
-하수처리시설 21개소 2008.6 준공(신설 17, 개선 4)

-환경기초시설 29개소 민간투자사업 추진(전북엔비텍)

-하수관거 2,820km 확충

-왕궁지역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추진(2008년 10월 예정)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에 의한 새만금호 상류 하천수질 관리



5-4. 새만금 수질대책 : 담수호와 바다

▪**담수호의 수질보전대책**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호소유입부에 침전지, 인처리시설, 금강호 물유입 수로 설치

-호소내에 인공습지, 인공수초섬, 환배수로, 저류지 등 설치

-배수갑문에 저층배수시설, 어도 등 설치

▪**바다의 수질보전대책**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예측 및 평가 실시

-해양환경변화 최소화방안 강구



▪**만경강 제외지의 토지경작율 증가현황**

구분	①하천구역 (㎢)	②고수부지 (㎢)	③경작면적(㎢)		
			계	전	답
만경강	50.5	10.5	10.2	0.98	9.24
구분	④경작율(%) ③÷①	⑤실경작율(%) ③÷②	계	⑥점용허가 (㎢)	⑦불법경작(㎢) ③-⑥
만경강	20.3	97.4	10.2	8.6	1.6

5-4. 새만금 수질대책 : 만경강 제외지

*만경강 제외지 토지피복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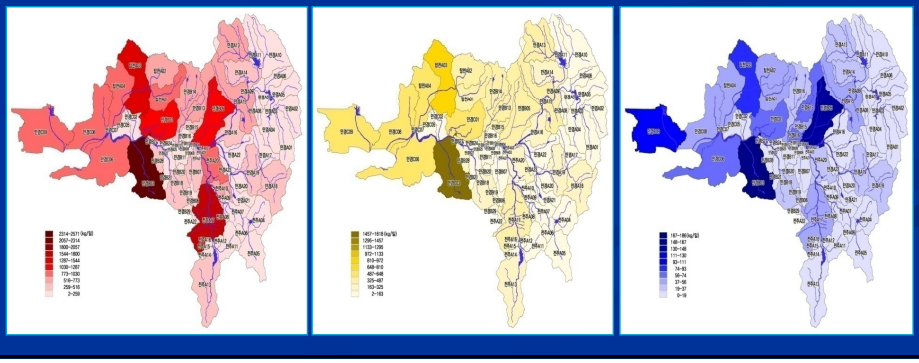
*만경강 수질측정망 현황 (유천, 김제, 익산천, 삼례, 전주, 전주천, 소양천, 고산)



5-4. 새만금 수질대책 : 만경강 비점오염 부하량

▪점오염원 대책에 비해 비점오염원 대책의 상대적 미흡

구 분	발생부하량 (kg/일),A	배출부하량 (kg/일),B	비점배출부하량 (kg/일),C	비율 (C*100/B)
BOD	284,715.1	32,206.1	23,020.1	71.5
T-N	51,561.0	16,002.3	13,045.1	81.5
T-P	14,705.5	2,445.4	1,559.6	63.8



5-4. 만경강 수질오염 대책

▪자연정화능력의 향상

-만경강 제외지 내에 분포하는 농경지 및 만경강내로 유입되는 주변 소하천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만경강의 자연정화능력을 향상시키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제외지 농경지 수변구역(수변완충지대)조성

-수중 유해물질 제거
-하천흐름 조절 및 물저장
-수중 및 육상 동식물 서식 제공
-하천주변 생태시스템 형성

▪만경강 제내외 고부하 하천 대상 인공습지조성

-고부하 하천수내 오염물질 제거
-초기우수처리능력 강화
-도시민 생태휴식처 제공







감사합니다!!

토 론

새만금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수질개선방향

전북대학교 새만금연구사업단장　교수　손재권

새만금사업은 국토확장, 농지조성 및 수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1991년 착공이래 수질 및 환경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통해 국책사업으로서 당위성을 확보하고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확정(2007.4.3)되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이 제정(2007.12)되어 올해 말(12.28)이면 공포된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 '새만금 TF팀'이 설치되어 다양한 논의를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고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농지중심에서 '경제중심도시'로 건설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검토 중에 있고 사업추진체계, 각종 지원시스템 및 특별조항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만금특별법도 개정 보완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새만금은 호기(好機)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검토중인 새만금의 주요 추진방향은 농지 72%를 30%로 축소 조정하고, 토지용도별 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하며, 사업기간 2030년까지를 2020년으로 10년을 단축함은 물론 순차적 개발(동진수역→만경수역)을 수질개선을 통해 동진·만경수역을 동시에 개발하고 개발우선순위가 높은 지역 (1,850ha)은 조기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것이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필요조건인 담수호의 수질확보이다.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왕궁축산폐수처리 시설의 보강 및 무방류시스템 도입, 만경강 하천부지내 농경지 감소 등을 통해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2010년까지 1년 단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질개선이 확보된다는 전제아래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용도별 토지이용(농업·산업용지) 개발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1. 농업용지

<새만금을 이용한 고부부가치의 친환경 첨단 농업용지의 조성으로 미래비젼과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함>

- 첨단원예·화훼단지(수출)
-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단지 조성
  -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생산작물의 재배를 통한 대체에너지 확보
  - 바이오경관 작물 재배를 통한 관광자원의 확보

• 4계절 푸른들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과 연계
• 친환경시험포 조성
 - 자연순환형 조사료 생산기지, 밭작물재배단지, 묘목방풍림 조성, 바이오 파크, Farm Pond, 완충지대 및 습지, 고품질친환경농업단지 등
• 세계적인 꽃 박람회장 조성(네덜란드 쿠켄호프)으로 관광수익 증대
• 세계적인 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첨단과학연구단지 조성
• Agropolis(애그로폴리스) : 세계를 겨냥한 벤치마킹 농업도시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활용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
 - 세계적 농업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첨단·생태 문화도시(마을)조성
 - 농업박물관, Rice Park 조성, 자연생태공원 조성, 생태체험관 설치
 - 간척종합complex타운 조성 : 연회장, 회의장, 영화관, 디즈니랜드 등
• Ecopolis(에코폴리스) :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고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도시 조성

2. 산업용지

•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전통특화산업, 지식기반사업 위주 개발 : 식품, IT
•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첨단부품 소재산업
• 기존 국내도시 및 국제도시 산업단지의 개발보다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다양한 테마형 산업단지 조성

<결론>

1) 두바이를 뛰어넘는 창의력, 차별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실행방안 수립
2)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로드맵 작성(세계 최고, 명품)
3)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사업이면서 국내적 시각, 단기적 시각보다는 국제적 중장기적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4) 새만금지역의 동북아의 두바이로서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 제공을 위한 우수교육·연구 기관 유치가 적극 검토(인센티브 제공)되어야 함
5) 장기적 토지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테마형 사업계획 수립(외국기업 및 민간기업 참여)
6) 새만금관련 투자기관 및 특별관리기구 설치 : 대통령 직속 토지이용계획안을 바탕으로 국가발전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하여 내부개발 추진(새만금특별구역 지정 등)

- 새만금 내부토지의 용도별 개발은 대기오염, 폐기물, 수질오염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과거에 발생되었던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친환경

적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함
- 새만금내부토지개발은 4차국토개발과 정부의 각종정책에 포함하여 거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새만금개발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원, 동북아 물류와 관광의 허브, 금융 중심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최적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현재 특별법 보완 중)
-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계획 구상 및 특별법제정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전북도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새만금관련 투자기관 및 특별관리기구 설치 : 대통령 직속
-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세계 최고, 최초 창의력)

에코도시 건설

에코폴리스는 에코(Ecology:생태)와 폴리스(Polis:도시)의 합성어로 자연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한 미래형 도시로 자연생태도시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 베를린이 도심지내에 야생동물의 이동로를 만들어 주는 등에코폴리스화돼 가고 있는 곳이 많다. 에코폴리스는 콘크리트 숲처럼 돼 삭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존의 신도시와는 달리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고 동, 식물이 살아 숨쉬는 생태도시 조성을 하는 것이다.

에코폴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도시보다 2배 이상의 녹지를 조성하고 무공해 발전시설인 태양열발전소 및 풍력발전시스템을 도입,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며 도시내 야생동물의 이동경로를 확보하는 것 등이다. 기존의 신도시와는 달리 적은 면적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택건설 면적을 전체의 19.9%,상업 및 업무용지를 3%로 억제하는 반면 도시 자연공원 및 그린공원 및 공원녹지를 46.5%로 크게 늘리는 것이다.

새만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새만금문화권을 중심으로-

나 종 우 (원광대 교수)

새만금이라는 명칭은 새로운 만금萬金이라는 뜻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만금'이라는 말보다는 '금만金萬'이라는 말이 더 익숙한 말이었다. 금만이라는 말은 김제金堤와 만경萬頃이라는 너른 들을 상징할 때 쓰던 말이다. 예전에 곧잘 부르던 '전북의 노래'에도 "금만경 넓은 벌에 퍼지는 물결…"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금만이라는 말을 바꾸어 만금이라 하고 여기에 '새'자를 더하여 새만금이라 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당시의 농림수산부에서 처음 쓰기 시작하였고, 1987년 7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발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 뜻은 '만금萬金'이 한자로 많은 돈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새만금을 역사문화적인 측면에서 조명해 보기 위해 우선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1967년에 패총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 타제석기와 즐문토기 파편이 채집되었다.

이곳은 새만금 방조제 부안 쪽에 해당하는 곳이다. 또 하서면, 행안면, 상서면 등에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 고인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주산면 소산리에서는 1966년에 무문토기 밑바닥에 볍씨자국이 찍힌 것이 1점 섞여 있었는데 이는 한반도 최초의 볍씨 자국 토기의 발견이었다. 여러 가지 학설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지방에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벼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여 · 몽 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갈 때 병선 900여 척을 부안에서 만들도록 하였다. 부안은 당시 조선술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고려시대의 문인 이규보는 변산을 가리켜 말하길 "변산은 나라 재목의 부고府庫이다. 소를 가릴만한 큰 나무와 찌를 듯한 나무줄기가 언제나 다하지 않았다." 고 하였다.

또한 새만금 앞바다는 일찍부터 중요한 해상 교통로였다. 고려시대의 경우 해상무역이 크게 성행하여 송, 일본, 유구를 비롯하여 때로는 멀리 아라비아의 상인들까지 내왕하였다.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개성 앞에 있는 예성항은 국제 무역항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고려와 송과의 항로는 북선항로北線航路와 남선항로南線航路의 두 길이 있었는데, 그 중 남선항로는 예성강에서 자연도紫燕島, 마도馬島, 고군산도 등 서해안의 도서지역을 거쳐 흑산도에 이르고 여기에서 서남쪽으로 항해하여 중국의

명주明州에 이르는 항로였다. 이 코스에서 군산도(群山島: 오늘날의 고군산도)는 중요한 기항지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1406년(태종6)에는 '자바'(인도네시아)에서 사신 언상彦祥이 토산물(교역품)을 싣고 오다가 군산도 앞에서 왜적을 만나 전부 약탈당하고, 21명이 죽고 60여 명이 잡혀갔다는 기록이 태종실록에 보인다. 군산도는 섬이었지만 내륙 못지않게 풍요를 누렸던 곳이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 "군산도는 전라도 만경바다 복판에 있으며, 역시 첨사가 관할하는 진영이 설치되어 있다. …그 복판은 두 갈래진 항구로 되어 있어 배를 댈 만하고, 앞은 어장이어서 매년 봄여름에 고기잡이철이 되면 각 고을 장삿배가 구름과 안개처럼 모여들어 바다 위에서 거래를 한다. 주민은 이로써 부유해져 의식주를 다투어 꾸미는데, 그 사치한 것이 내륙의 백성보다 심하다."라고 하였다.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누차 지적되고 발표되어온 21세기 동북아 및 환황해 경제권 전진 기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종합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새만금 지역의 새로운 문화권을 일구어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재문화화(inter-culturation)해야 된다.

새만금을 동북아 중심의 비전을 실현하고 제시할 '약속의 땅(Promising Land)' 민원 · 환경 · 기타 시설과 충돌 · 보상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땅(Free Land)', 더 이상 간척이 불가함에 따른 세계 유일의 '마지막 땅(Last Land)'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새만금 문화권이라는 용어는 그 배후에 있는 넓은 의미의 새만금 권역(군산, 김제, 부안 등)의 기존의 인물과 사상, 문화를 꿰어 새로운 문화권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있어 왔던 정신적 문화를 재문화화(inter-culturation)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1)부안 :

① 주류성과 백강을 통한 백제 부흥운동과 백제정신

②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과 허균의 『홍길동전』에 나타난 민民의 모습 같은 것. 먼저 허생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소설을 쓴 연대는 대략 1780년에서 1793년 사이로 잡고 있다. 그런데 그 소설 가운데는 서울 남산 아래 묻혀 책만 읽던 허생이 어느 날 책 읽는 것을 그만두고 상인으로 변신하여 전라도 부안 변산반도에 창궐해 있던 2천여 명의 도적을 정착케 하였다는 것이다. 무인도 개척 3년 만에 그 잉여 곡식을 일본 나가사키에 팔아서 은 백만 냥을 벌었다는 것이다.

③ 유형원의 '민'에 대한 의식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형원은 17세기 중엽에

서 말엽에 걸쳐 그의 사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그가 부안에서 거주하던 때였다. 즉, 유형원은 1653년 32세의 나이로 부안군 보안면에 이주하여 20년간 은거하면서 1남 6녀를 길렀다.

④ 진표율사와 부사의방不思議房의 행적을 통하여 영원한 백제인 이기를 자처했던 진표의 정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표에 대하여 이기백은 「진표의 미륵신앙」에서 "옛 백제 지역인 김제에서 태어난 진표가 백제인을 자처하며 이곳(부안)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운동을 펼쳤던 이면에는, 백제 전통의 계승에서 한걸음 나아가 백제의 정신적인 부흥원동을 통하여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반신라적反新羅的인 이상국가를 건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2) 김제

부설거사(浮雪居士 647~699)와 진묵대사(震默大事 1562~1633)의 정신이다. 진묵대사는 김제 만경 출신이다. 부설거사는 만경 구무원의 집에서 거사로 전환한다. 모두 만경과 연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스님 모두 민중과 함께하면서 평등과 자유의 이념을 주창한 선각자들이다.

3) 군산

최치원(857~?)은 통일신라 말기 6두품 출신의 학자로 동방 최고의 문장가 이자 유불선 3교를 겸비했던 중세적 지성의 선구자다. 최치원과 고군산을 연결 지을 수가 있다. 최치원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옥구, 경주 등 여러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물과 예를 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모아 문화권 코드를 만들어 낸다면 몇 가지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민民에 대하여 접근하면서 민의 의식과 민의 문화를 담아 낼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새만금 불교사상이나 문화를 담아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 외에도 유교문화도 엮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기획하여 미래지향적인 관광상품으로까지 끌어 올릴 것인가는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분명 새만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 새만금의 문제는 국가 미래의 희망을 안겨줄 미래의 약속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21세기를 지향하는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200만 전북도민의 수백 년 미래가 걸린 역사적인 숙원사업으로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희망이며,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전환점으로 인식되고 있다.(-2006. 3. 16 대법원에서의 최후변론 결론 부분-)

새만금은 물막이 공사 완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모든 이들의 중지를 모아 미래에 후회하지 않도록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 지역의 토지이용 및 수질관리 방안

건국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성준

새만금유역(3,319 km^2)의 면적 대비 담수호 면적(118 km^2, 저수량은 5.3억톤)의 비율은 28.2:1.0이고, 기존 연구에 의하면, 새만금호의 체류시간은 2.5개월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새만금호의 수질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유역 및 호소관리가 되어야 한다.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이미 만경동진유역의 환경기초시설의 건설(1조 4천여억원)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새만금호 수질문제의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유역으로부터의 유입수(12.9억톤/년)에 의한 퇴적물 및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변화(기본적으로 수온상승->수화현상, 현재 만경강방향은 25℃이상이 35일, 동진강방향에서는 45일)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유역의 평야부에 조성되는 용지별 토지개발(농업용지:202.5 km^2, 산업/관광/도시용지:35.2 km^2, 환경용지 30.0 km^2)은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태환경적 완전 물순환시스템(상/중/하수도/하수의 재이용 체계)의 구상 및 실현이 요구된다. 새만금호의 풍부한 수자원은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마인드(대규모 정수시스템, 광역상수도 등)가 필요하다. 담겨져 있는 상태로는 장기적으로 수질관리가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편, 하천 및 수질의 감시/수질사고 대응 및 완화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육지에서의 고정밀 카메라에 의한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새만금호의 수표면 및 수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입체적 모니터링 체계(예, 저고도 비행선, COMS 인공위성, 수중수질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새로이 조성될 283 km^2의 토지이용계획(2030년 기준시 농업용지 71.6%, 산업/관광/도시용지 12.4%, 환경용지 10.6%)은 어느 정도의 구상이 되어 있고, 관광지 개발은 국제공모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용도별 경제적 타당성 고려 및 친환경 개발원칙도 세워져 있다.

다만 순차적 개발시, 경제적 B/C ratio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겠지만, 새로이 대두되는 제약조건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Bio-fuel(농업용지), 신에너지(태양광, 풍력, 조력 등) 및 각 용도별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작물, 생태환경, U-도시건설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개발사업별 반드시 이와 같은 제약조건들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토지이용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의 미래지향적 구축 및 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인데, 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참여(참여시 세금감면 등) 및 농업은 많은 면적으로 대상으로 사업초기부터 미국과 같은 대농(Huge farm) 및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 체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향후 대규모 관광지 개발, 운영 수익금의 일부는 수질 및 농업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